

住居環境에 있어서 綠地와의 接觸이 住民意識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舊奈良市街地를 對象으로—

朴文浩* 近藤 公夫**

*서울市立大學校 조경학과

**神戶藝術大學 環境디자인학과

Influence of the Green-Contacts on the Consciousness of the Dwellers in the Residential Area of Nara

Park, Moon-Ho · Kondoh, Kimi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City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al Design, Kobe Design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s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the green-contacts on the consciousness of the dwellers in the residential area of Nara. The consciousness of the dwellers is investigated by questionnaire which deals with verdure, green-sufficiency and the green-contacts of dwellers. Five districts of the old residential area in Nara were selected and surveye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vestigated data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wellers have a tendency to satisfy the greenery although the size of open space is small. Accordingly, the green-sufficiency is the available scale to investigate the greener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dwellers.

2. Dwellers contact with the green space of housing as well as the surrounding familiarized-green. It was understood that the green-contacts of dwellers is characterized by the kind of greenery, means and their frequency.

3. The familiarized-green contacts with the dwellers is related to the private and public uses.

4. In order to satisfy the feeling of green-sufficiency, the greenery space should be increased; it was found that green-sufficiency is satisfied by increasing the greenery space.

5. In the case of small open space, it is also possible to satisfy an attitude of green-sufficiency by introducing the familiarized-green, even if the rate of greenery space is low.

1. 緒 論

綠地는 住居環境의 質的 快適性을 재는 바로메타 중의 하나이다. 最近 住居環境의 질적 쾌적성을 얻기 위하여 정비함에 있어서는 公共部門에 의한 綠化事業뿐 아니라 私有地의 綠化에도 주의를 기

울이고 있다. 즉 接道部의 綠化와 같은 宅地의 綠化와 함께 綠道, 公園綠地의 整備와 같은 公共綠化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 宅地의 綠지는 市街地의 약 半以上을 차지하는 오픈스페이스이지만 도시의 綠地로서 거의 認識되고 있지 않다. 地價가 높고 土地도 限定되어 있는 都市에 있어서 宅

지를 포함한 住居地の 녹지는 都市綠化의 對象空間으로 取扱되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들이 日常生活을 營爲하는 住居環境에 있어서 綠地에 대한 滿足感은 주거환경의 快適性에 대한 滿足에 큰 影響을 미치므로(井手, 1983)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녹지에 대한 주민의 要求를 만족시킬 必要가 있다. 한편,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地理的, 사회적 條件이나 자연환경의 差等 지역의 고유한 特性에 따라 住民들이 接하는 綠地의 質的, 量的 內容이 다양하며, 住民의 綠지에 대한 要求 또한 다양하다.

지금까지 綠地에 대한 연구는 大都市를 중심으로 행해져 왔으나 地方中小都市에 있어서도 그 地域, 都市 高유의 自然, 歷史的 資産을 살려서 綠地環境을 정비하는 것이 重要하다.(增山, 1989) 특히 傳統的 住居를 포함하는 舊市街地의 대부분은 立地條件上 주변의 自然環境과 接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적 특징을 살린 綠地의 整備가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最近 舊市街地에 있어서는 住宅의 増築 및 改築에 따라 綠지가 양적으로 減少되고, 高層건물의 난립에 따라 주변의 自然과 接하기 어렵게 되는 등 住民과 綠지의 接觸 및 意識의 樣相이 變해가고 있다.

따라서 본 研究는 舊奈良市街地의 주거지역을 對象으로 住民의 綠地에 대한 意識이 住居 주변 綠地와의 接觸에 의해 充足되어진다는 假定下에서, 綠地와의 接觸이 住民意識에 미치는 影響을 파악하는 것을 目的으로한다.

2. 調查方法

(1) 調查 對象地區

오늘날 주거환경의 整備에 있어서는 生活의 質的 向上에 따라 에메니티를 주는 綠地가 要求되고 있으며, 綠地의 創出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固有한 特性을 살릴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傳統的 景觀이나 주변에 자연환경을 가지고 형성된 舊市街地 내의 주거환경 整備에 있어서는 지역 高유의 綠地를 育成, 創造하는 것이 重要한 課題이다.

對象地인 奈良市는 京都, 鎌倉 그외의 歷史的 都市와 함께 傳統的 景觀의 保全과 綠地의 保存 및

創出이 主要한 課題로 되어 있다. 京都市는 전통적 景觀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良好하여 주변 綠地의 保全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鎌倉市는 傳統的 景觀보다는 주변의 社院, 山 등의 綠地의 確保를 주요한 課題로 하고 있다.

舊奈良市街地는 전통적 주거의 老朽化와 함께 住宅의 増築 및 改築, 空地의 駐車場化, 아파트의 建設 등이 진행되어 住居內部的 綠地가 減少되고, 주변 綠지와 接하기 어려운 現狀이 急增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史蹟을 활용하여 全國의 規模의 행사를 開催한다든지 觀光地化하는 등으로 주민들이 주변 綠지를 利用하기 어려워져 이로 인한 심한 갈등(conflict)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調查 對象地區로서는 주변의 綠지와 接해 있는 舊시가에서 住居環境으로서 形成年代가 오래된 5개 지구를 選定하였다.(그림1, 표-1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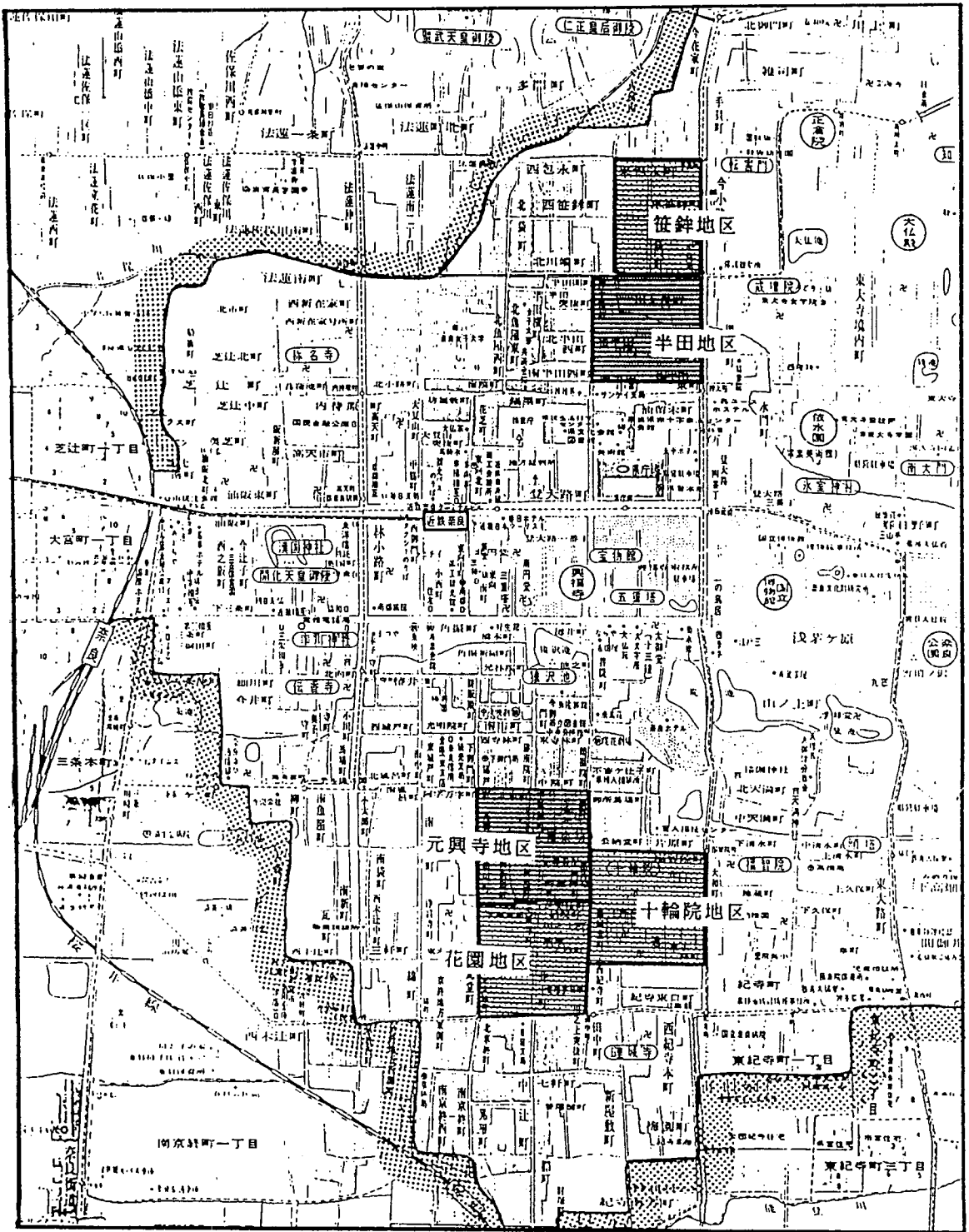
〈表 1〉 調查對象地의 概要

대상지구	형성연대	家口數	街區面積	地區의 特性
元興寺地區	1556-92	216	67499m ²	지구내 寺院有(2475m ²)
十輪院地區	1684-88	193	69062m ²	· (6250m ²)
花園地區	1624-44	231	49900m ²	
半田地區	1529	212	62126m ²	지구내 寺院有(1600m ²)
笹 地區	1684-88	183	46999m ²	· (2563m ²)

(2) 調查方法

調查方法으로는 <表-2>과 같이 住民의 綠地에 대한 意識의 設問調查, 綠地와의 接觸 實態에 대한 戶別 面接調查, 觀察調查 등을 實施하였다.

먼저 住民의 綠地에 대한 意識으로는 「住居 및 주변의 녹화에 대한 만족」 「정원의 넓이에 대한 滿足」 「綠量滿足」 應答者의 屬性 등에 대하여 제한응답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구내 對象戶數 931戶에 配布하여 461戶를 回收하였다. 또 설문조사에 應答을 한 461戶 중에서 家口를 확인할 수 있는 351호를 對象으로 戶別 面接調查(「가까운 綠지와의 接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거 및 주변의 綠지와의 接觸 實態를 파악하였다. 住居 內部的 공간 면적은 1:500地形圖上에서 点格子板, 플라니메타로 算定하여 應答家口의 물리적 속성으로 이용하였다. 각 주거 및 주변 綠地의 現況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및 觀察調查를 行하였다.



[그림 1] 調査對象地區의 位置

<表-2> 調査方法의 概要

調査方法	調査의 概要
綠地에 대한 意識	*제한응답식 設問紙 조사 *調査表의 配布; 戶別 배포 후 1주일 後 回收 *對象 家口數; 舊나라시가지의 元興寺 地區, 十輪院, 花園地區, 半田地區, 笹鉾地區 *對象 家口數; 931戶 *有效 回收數; 461戶 (회수율: 50%)
綠地와 接觸에 대한 실태 조사	*調査의 특징; 意識調査 후에 補助的으로 실시 *調査方法; 제한응답設問에 의거 戶別 面接調査 *對象地區; 意識調査와 同一 *對象住戶數; 의식조사에 회답한 461호중 家具가 확인 가능한 351호 *有效回收數; 225戶 (회수율: 64%)
空地面積의 算出	1:500地形圖에서 플라니메타, 点格子板으로 측정
觀察 및 現況 調査	"親近한 綠地"에서 추출된 장소에 대하여 樹木의 分布, 면적, element數, 視覺的 영향, 利用 可能性, 집에서 부터의 距離 등 조사

3. 住民의 綠地에 대한 意義

舊나라시가지에서는 住居地내에 綠지가 不足하고 주변의 山, 寺院 등의 綠지가 豊富하기 때문에, 住民의 綠地에 대한 意識의 파악에 있어서는 「滿足度」뿐만 아니라 양적인 「多少感」이 重要한 尺度가 된다. 平野(平野, 1983)는 「滿足度」 및 「多少感」을 포함하는 尺度로 綠지에 대한 意識을 分析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尺度로 意識調査를 行하였다.

(1) 住居의 綠地에 대한 意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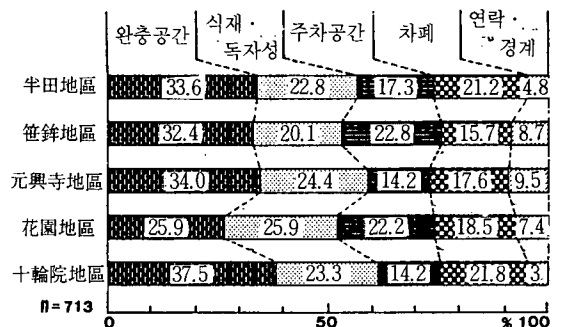
기존의 綠地에 대한 의식조사에 의하면 住居의 綠지에 대한 滿足度는 정원의 넓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指摘되어 있다. (井手, 1983) 또한 對象地區에서는 前庭을 가지고 있는 家具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의식도 把握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주거의 綠지에 대한 의식은 「自宅의 綠화에 대

한 滿足」, 「정원의 넓이에 대한 滿足」, 「前庭의 역할」의 相互關係에 依해 파악했다.

먼저 「自宅의 綠化에 대한 滿足」은 「매우 滿足」에서 「매우 不滿足」까지 5단계 평가를 하였다. 그 結果 「매우 만족」(15%), 「약간 만족」(16%), 「보통」(36%), 「약간 不滿足」(20%), 「매우 불만」(13%)로 나타났다.

「정원의 넓이에 대한 滿足」은 「매우 만족」(14%), 「약간 만족」(12%), 「보통」(26%), 「약간 불만」(20%), 「매우 불만」(28%)로서 庭園의 넓이에 불만인 家具의 比率이 만족인 家具를 上廻하고 있다.

「전정의 役割」로서는 (제한응답, 複數選擇) 「도로와 사이에 緩衝空間을 만든다」(27%), 「植栽로 집의 獨自性을 나타낸다」(23%), 「車 등을 놓는다」(20%), 「外部에서 庭의 内部를 보기 어렵게 한다」(17%), 「連絡, 境界의 역할」(5%)의 順으로 重要하다고 答하고 있다. (그림2 參照) 緩衝空間이라는 抽象的 役割을 除外하면 植栽에 의한 집의 獨自性(identity), 駐車空間이 주된 역할로 認識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住居의 綠地에 대해 즐긴다는 觀賞하는 등의 效用을 중시하던 사고에서 遮蔽, 遮靑과 같은 綠지의 二次的 效用이 점차적으로 의식되어 가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2] 「전정의 역할」에 대한 의식

「自宅의 綠化에 대한 滿足」과 「정원의 넓이에 대한 滿足」의 相互關係를 檢證해 보면, 정원의 넓이에 만족할 수록 綠化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정원의 넓이에 不滿足일수록 綠化에 不滿足이라는 傾向에 있어서 강한 상관($\chi^2=265.59$) $\alpha_{0.005}(26.30)$ 을 보인다. 이 같은 自宅綠化에 대한 滿足과 정원의 넓이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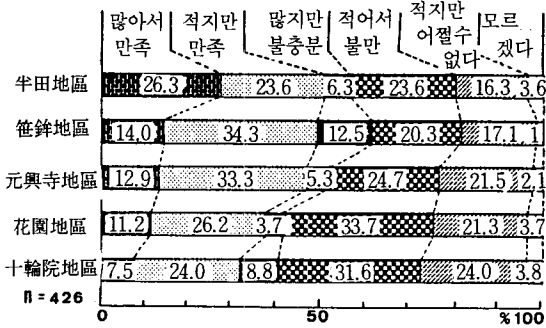
한 滿足意識의 相互關係에서 주거에 있어서 綠地에 대한 滿足意識을 재는 指標로서 「정원의 넓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住居 周邊의 綠地에 대한 意識

사람들의 녹지에 대한 意識은 住居 內部 뿐만 아니라 주변 綠地의 影響에 의해서도 形成된다고 한다. 대상지구에 있어서 주변의 녹지에 대한 住民의 意識은 「地域의 綠化에 대한 滿足」, 「綠量에 대한 滿足 (以下 「綠量滿足」)으로 파악했다.

먼저 「지역의 녹화에 대한 만족」은 “매우 만족”(3%), “약간 만족”(8%), 보통(46%), “약간 불만”(30%), “매우 불만”(13%)로서 약간 不滿足 意識을 갖고 있다.

「綠量滿足」은 “많아서 만족”(15%), “많지만 아직 불충분”(7%), “적지만 만족”(30%), “적어서 불만”(27%), “거의 없지만 어쩔 수 없다”(20%)이다. 따라서 過半數 이상의 주민이 量的으로 적다고 느끼고 있으며(“적지만 만족”+ “적어서 불만”+ “거의 없지만 어쩔 수 없다”), 대상지구별로도 滿足意識 특성이 相異함을 알 수 있다.(그림3 참조)



[그림 3] 「녹량에 대한 만족」의식

(3) 綠地에 대한 意識의 相互關係

녹지에 대한 의식의 상호관계는 먼저 「地域의 綠化에 대한 滿足」과 「自宅의 녹화에 대한 滿足」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有意한 相關關係가 認定된다. { $x^2=43.28$ } $\times 0.005$ (26.30)} 「綠量滿足」과 「地域의 綠化에 대한 滿足」의 관계에 있어서도 有意한 差가 인정된다. { $x^2=51.93$ } $\times 0.005$ (21.03)} 그러나 「地域

의 녹화에 대한 滿足」과 「녹량의 多少感」의 상호관계에서는 약한 상관이 보인다. { $x^2=4.07$ } $\times 0.05$ (3.84)} 「綠量만족」과 「주택의 녹화에 대한 滿足」의 상호관계에 있어서도 有意한 相關關係가 認定된다. { $x^2=37.55$ } $\times 0.05$ (9.47)} 그러나 「自宅의 녹화에 대한 만족」과 「綠량의 多少感」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한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 $x^2=2.97$ } $\times 0.10$ (2.71)}

이에 따라서 주민의 녹지에 대한 滿足意識은 「많다-적다」와 같은 「量的 多少感」보다 「「적어도 滿足」, 「많아서 滿足」과 같은 滿足感에 있어서 강한 相關關係가 認定되므로, 「綠量滿足」이 以下の 分析을 위해 有效한 指標라고 할 수 있다.

「綠量滿足」과 應答者 屬性의 關係를 檢證해 보면(표-3 參照), 家族構成, 年齡, 永住意識, 車의 所有와 有意한 상관關係를 보인다. 먼저 가족구성과의 關係를 보면 獨身 및 핵가족의 경우는 비교적 綠量에 만족하고 大家族(子+부모+조부모)은 不滿足이 많다. { $x^2=6.28$ } $\times 0.05$ (5.99)} 年齡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老年일수록 녹지에 만족하고 年少할수록 녹량에 불만이다. { $x^2=5.73$ } $\times 0.10$ (4.61)} 또 永住意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綠地에 만족하고 移轉할 예정인 사람은 녹지에 불만인 傾向을 보인다. { $x^2=8.03$ } $\times 0.005$ (7.88)}

車의 所有와의 關係는 車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不滿足과 滿足의 비율이 거의 같고 차가 없는 경우에 綠地에 滿足하는 傾向을 보인다. { $x^2=10.56$ } $\times 0.005$ (7.88)}

[표 3] 「綠量滿足」意識과 應答者의 屬性關係

住居意識		綠量滿足意識			住民意識		綠量滿足意識			
應答者	屬性	滿足	不滿足	合計	應答者	屬性	滿足	不滿足	合計	
家族構成	獨身	19	7	26	住居	60年以前	39	28	67	
	核家族	55	60	115		20年以前	106	76	182	
	大家族	51	36	87		年數	20年未滿	20	23	43
	合計	125	103	228		合計	165	127	292	
性別	男性	96	79	175	車所有	있다	95	100	195	
	女性	73	55	128		없다	76	36	112	
	合計	169	134	303		合計	171	136	307	
年齡	30未滿	20	30	50	永住	永住	142	94	236	
	中年	85	59	144		移轉	9	19	28	
	老年	58	43	101		合計	151	113	264	
	合計	163	132	295						

4. 住居 및 주변의 綠地와의 接觸

기존의 「住居 주변에서 親近하게 느껴지는 綠地에 대한 調査」에서는 民家の 庭木이나 生울타리, 山이나 丘陵, 公園, 街路樹, 寺院의 境內林, 學校나 公共施設의 부속庭 등이 많이 나타나 住居內部的 私人的 綠地뿐아니라 주거 주변 綠地의 重要性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또 실제로 주민이 日常生活에서 접촉하는 綠지로는 住居내부에 植栽되어있는 庭園이나 空地 등과 함께 자연성을 계기로 接하는 公園이나 山과 같은 “親近한 綠地”가 중요하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가까운 綠地와의 接觸에 관한 調査」(제한응답설문, 단 친근한 綠지의 종류만 자유응답)를 기초로, 住居 및 주변의 親近한 綠地에 대하여 接觸하는 綠지의 種類, 接觸방법, 接觸頻度를 分析하여 주민이 綠지와 접하는 특성을 파악했다.

(1) 住居에 있어서의 綠地와의 接觸

거주자에게 있어서 정원은 자연과 接하는 가장 가까운 오픈스페이스이다. 傳統的 住居에 있어서 綠지와의 접촉은 日常的으로 觀賞함으로써 마음을 弛緩시키는 視覺的, 心理的, 象徴的 效果가 중시되었다. 그런데 近年 從來의 觀賞的인 綠지와의 접촉방법이 초화나 庭木의 손질과 같은 維持, 管理하는 행위를 통해서 接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綠地和 접하는 장소도 종래의 내부의 庭(後庭) 중심에서 前庭의 綠지와 接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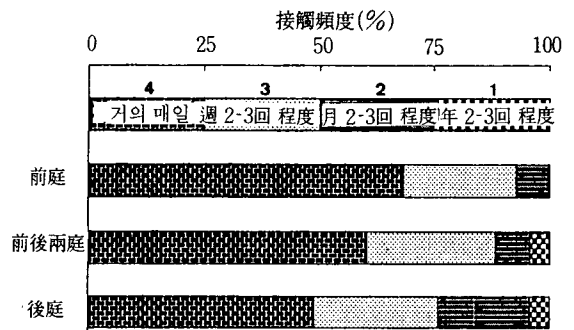
1) 綠지와 接하는 場所, 接觸方法, 接觸頻度

住民은 日常的인 물주기, 풀뽑기 등의 「손질」(75%), 「觀賞」(14%) 등을 통하여 綠地和 接하고 있으며 一般的으로 綠地和 接觸이 많다. 그것은 住居에서 園藝를 즐기는 등 綠地에 대한 關心이 높고, 자신이 손질하는 등 日常的으로 綠地에 接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庭木의 專門的인 손질이 必要한 경우는 費用이 들므로 年2-3회에 그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손질을 하고 있다. 또 接하는 場所로서는 後庭(건물 뒷부분의 庭:44%), 前庭(건물 전면의 庭:19%), 前後兩庭(건물의 앞뒤로 庭이 있는 경우:32%)를 들 수

있다. 그것은 傳統的으로 後庭의 綠지와 주로 接하던 관습에서 前庭의 綠지와 接하는 경우가 增加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朴,1988) 綠지와 接하는 頻度は “거의 每日”(57%), “週2-3回”(26%), “月2-3回”(13%), “年2-3回”(3%)로서 전반적으로 接觸頻도가 높다.

2) 接觸場所, 接觸方法, 接觸頻度の 相互關係

주거에 있어서 綠지와 접촉을 接觸場所, 接觸方法, 接觸頻度の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나 전반적으로 綠地和 접촉이 增加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3가지 측면의 相互關係를 分析하여 보면, <그림 4>는 接하는 場所別로 접촉빈도를 본



[그림 4] 주거에 있어서 綠지와 接하는 對象과 빈도의 관계

것이다. 前庭의 綠지에 접하는 가구는 後庭의 綠지에 접하는 가구보다 比較的 接觸빈도가 높은 傾向이 있다. 따라서 住居에 있어서 綠지를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 居住者가 綠지와 接하는 기회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後庭에 접하는 가구는 정원이 觀賞的인 성격을 띄기 때문에 年2-3회 정도의 專門的인 손질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땅에 심어져 있고 연륜이 오래된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觀賞한다든가 물을 준다든지 하는 정도에 그치고 직접적인 손질의 頻度は 약간 낮아진다. 반면 화분을 두는 경우는 땅에 심는 것보다 마르기 쉽고 손질하기 쉽기 때문에 接觸頻도가 증가한다. 後庭 및 前庭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계절적으로 後庭에서 栽培한 화초라든가 盆栽를 前庭에 내놓아 장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前庭은 출입시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接觸頻도가 약간 높아진다고 생

각된다.

綠地와 접하는 方法과 接觸頻度の 상호관계에 있어서는 接하는 方法이 대부분 손질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有意할만한 傾向은 보이지 않는다. 接하는 場所별로 接觸方法과 頻度の 관계를 보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前庭에 接하는 家具, 前庭 및 後庭에 接하는 家具, 後庭에 接하는 家具의 順으로 손질보다도 觀賞에 의한 접촉빈도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

또한 住居에 있어서 녹지와 接하는 場所별로 認識하고 있는 「前庭의 役割」은 緩衝空間으로서의 前庭이 가장 많고, 前庭을 가지고 있는 家具의 경우는 植栽에 의한 獨自性, 駐車스페이스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後庭을 가지고 있는 家具의 경우는 緩衝空間으로서의 遮弊의 役割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傾向이 보인다. 이러한 傾向은 자연환경이나 車 등의 物理的 근린 환경의 變容에 따라서 遮弊, 먼지의 방지, 遮音 등 녹지의 二次的인 效用이 점차 確實히 認識되어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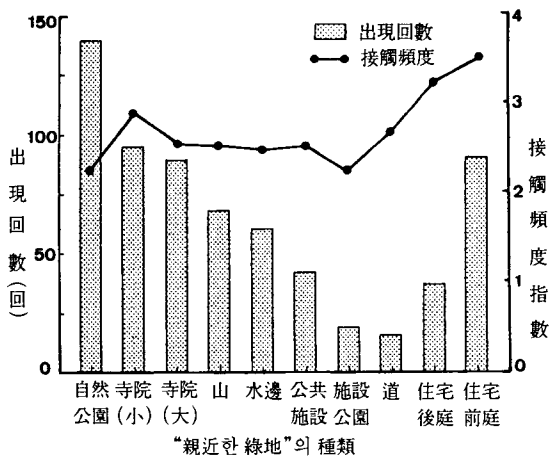
(2) 住居 주변의 “親近한 綠地”와의 接觸

녹지에 대한 동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欲求이며 녹지와의 接觸에 의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화분과 같은 작은 녹지라도 이들을 직접 體驗하고 자신의 눈으로 認識할 수 있는 녹지와의 접촉이 중요하다.(進士, 1987) 舊奈良市街地에서는 주거 내부의 녹지와 함께 그 주변의 녹지가 하나의 生活圈을 형성하여 가까운 자연환경과 接觸을 꾀해왔다. 公園, 寺院의 境內林, 산 등의 주변 녹지는 일상적인 이용행위나 視覺的인 접촉, 접촉의 程度 등에 의하여 “親近한 녹지”로서 느껴진다. “親近한 녹지”로서 느껴지는 (認識되는) 과정은 본다든가 이용한다든가하는 認識 및 體驗의 段階와 想起되는(연상해 내는) 再生의 段階로 나뉘어진다.(井手, 1985) 認知 및 體驗의 단계는 주변의 녹지를 이용한다든가 본다든가하는 접촉의 方法과 관계되며, 再生 및 想起의 단계는 녹지와 인간의 접촉의 정도(頻度)에 의해 “親近한 綠地”로 연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녹지와 접촉 특성은 「가까운 녹지와 接觸에 대한 實態調査」를

통해서, “친근한 녹지로서 떠오르는(想起되는) 녹지”의 種類(자유응답설문), 이용한다(간다), 본다(집에서 보인다, 외출시에 본다 등) 등의 接觸方法과 接觸頻도로 파악하였다.

1) “親近한 綠地”의 種類

舊나라시가지에 있어서 “親近한 綠地”로서는 자연공원, 시가지내 사원의 境內林, 주택의 전정, 대규모 사원의 境內林, 산, 川이나 池 등의 수변, 공공시설의 부속庭, 주택의 후정, 도로변의 녹지, 아동공원 등이 抽出되었다.(그림5 參照) 이들을 所有의 측면에서 분류해보면, 公園녹지, 산, 池 등의 “公的 綠地”(公共部門에 의해 管理되고, 이용에 대하여 완전히 開放的인 녹지), 사원의 경내림, 공공시설의 庭 등의 “共有的 녹지”(管理의 주체가 住民, 또는 法人 등이나 일반 시민도 共用할 수 있는 半開放的인 녹지), 주택의 정원, 공지 등의 “私的 녹지”(個人 所有이며 이용도 개인에 限定되어 있는 녹지)로 나뉘어 진다.



[그림 5] “親近한 綠地”의 種類별 接觸頻度の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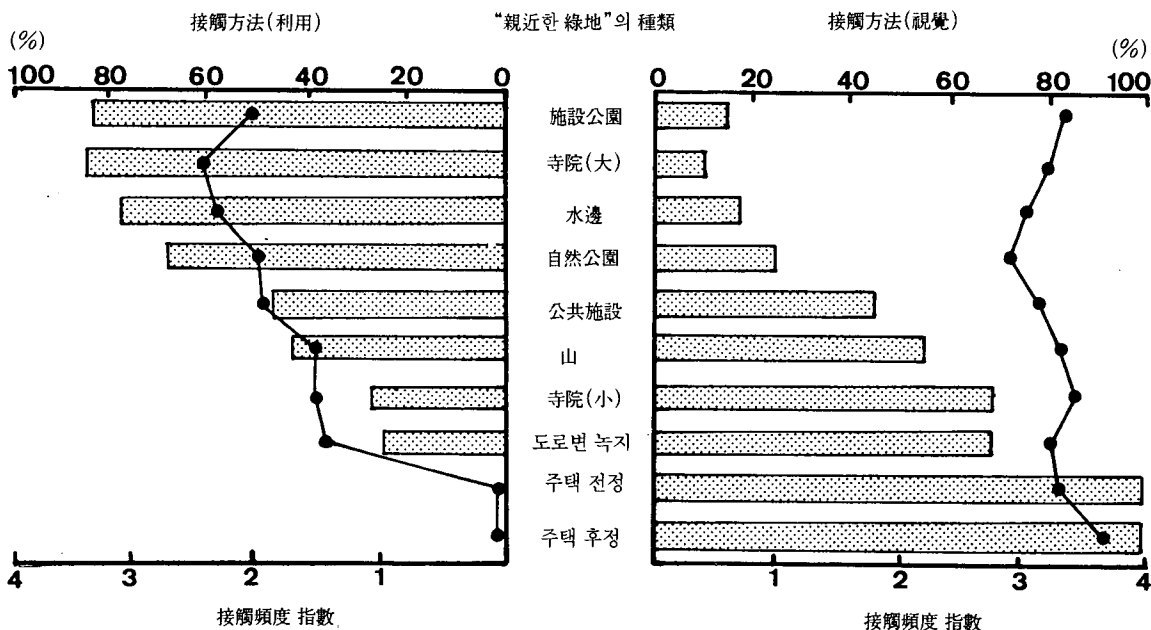
또 일정 생활권에 居住하는 많은 주민에게 있어서 “親近한 녹지”는 數個所에 集中하는 傾向이 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이용되어온 자연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성 공지를 갖는 대규모 사원의 경내림, 산 등이 특정의 이름으로 다수 想起되었다. 이러한 “公的 녹지”는 시내에서 바라다 보이는 美的眺望性을 가지고 있으며(片山, 1986), 도시생활에

있어서 랜드마크로서 중요시되는 한편으로 도시공원으로 주민의 레크리에이션이나 모이는 장소로서 “親近한 綠地”로 많이 想起되고 있다.

2) “親近한 綠地”의 種類, 接觸方法, 接觸頻度の 關係

“親近한 녹지”는 그 종류별로 이용에 의하여 接하는 것과 視覺에 의해 接하는 것으로 나뉘어 진다. 利用에 의해 친근감을 느끼는 綠地로서는 자연공원이라든가 대규모 사원의 境內林, 川 등의 公的 녹지가 많이 想起된다.(그림6 參照) 視覺的 接觸에 의해 친근감을 느끼는 녹지로서는 山, 시가지내 사원의 境內林, 주택의 녹지, 도로변의 녹지 등이 비교적 많이 想起되고 있다. 종래의 주거에서는 2층

의 창문으로 주변의 山을 眺望할 수 있어서 자연의 혜택을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의 택지, 공지에 집합주택 등을 세우므로써 山에의 展望을 해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시가지내 소규모 사원의 境內林은 실제적인 이용은 적지만 “神木”으로 認識된다든지 항상 눈에 接觸하므로써 視覺的, 象徴的으로 “친근한 녹지”로서 想起되어 진다. 주택 전정의 화분, 庭木 등의 植栽는 일상적으로 視覺的 接觸에 의하여 친근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녹지가 적은 주거지의 綠化에 있어서 담당하는 役割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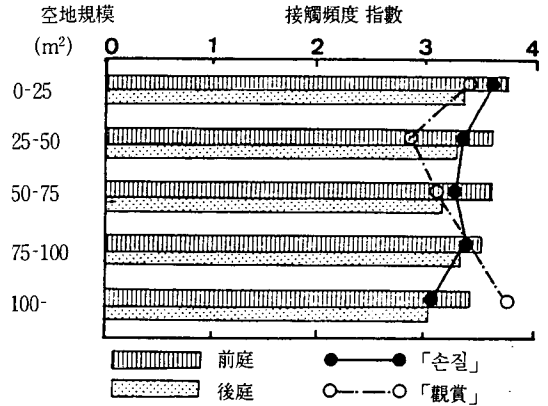
[그림 6] “친근한 녹지”와의 接觸方法과 接觸頻度の 關係

또한 “親近한 綠地”의 接觸頻度は “매일 같이 (4)”, “週2-3회정도(3)”, “月2-3회 정도(2)”, “年2-3회정도(1)”와 같이 指數化하여 그 정도를 定量的으로 표시하였다. “親近한 綠地”의 種類별 接觸頻度は <그림 5>와 같이 주택의 녹지, 시가지내 소규모 사원의 境內林, 가로변의 녹지, 대규모 사원의 경내림, 수변 녹지, 공공시설의 부속庭, 자연공

원, 山의 순으로 接觸頻도가 높다. 그것은 소규모의 사원, 가로변의 녹지 등 주거지내에서 항상 接할 수 있는 “共有的 녹지”가 “公的 綠地”보다 실제적인 접촉빈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친근한 녹지”와의 接觸方法과 接觸頻度の 關係는 시설공원, 산, 시가지내 소규모 寺院의 境內林, 주택의 녹지 등 視覺에 의해 接하는 녹지가 이용에

의해 접하는 녹지보다 접촉빈도가 높다. 그들 녹지는 個人이나 法人 등에 소유되어 있는 녹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두에게 보여지는 특징 때문에 共有되어져야 할 녹지로서의 役割도 중요하다. 특히 주택 前庭의 녹지는 居住者가 손질하는 등 직접적으로 接觸할 수 있는 녹지인 동시에 近隣의 사람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녹지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하다. 또한 자연공원은 出現回數가 높긴하나 실제적으로 接觸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용은 年數回에 그치지만 지나치면서 본다든지 계절적으로 정해 놓고 방문한다든지 하여 意識에 있어서 보다 강하게 親近한 綠地로서 느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空地規模別 接觸方法, 接觸頻度の 관계

(3) 住民들이 接觸하는 녹지의 構造的 特性

1) 住居의 空地規模와 녹지와의 接觸

舊奈良市街地の 주거에서는 전통적인 後庭에 接觸하는 주거의 감소와 함께 前庭에 接觸하는 주거가 增加하고 있다. 주거에 있어서 綠地의 位置는 公지규모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指摘된 바 있다. (朴, 1989) 前庭을 가지고 있는 주거의 경우는 비교적 空地의 규모가 적고 그 대부분을 接道空地로 확보하며, 後庭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公지의 대부분을 内部空地로 잡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거의 녹지와 接觸하는 장소별로 空地規模, 接觸頻度の 관계를 살펴보면, 公지의 규모가 적은 가구의 경우(50-75m² 이하) 직접적으로 손질하는 頻도가 높고 公지가 넓어지면(75m² 이상) 觀賞의 頻도가 높게 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後庭의 觀賞의 성격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7 참조)

2) “親近한 녹지”의 空間的 特性

井手 等は(井手,1985) 친근하기 쉬운 綠地空間의 條件으로서 到達距離가 가까울 것 利用의 종류가 많을 것 視覺的인 影響력이 클 것(녹지의 volume) 名稱을 갖고 있을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친근한 녹지”로서 조사된 장소의 空間的 조건을 上記의 기준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4 參照)

舊奈良市街地에서 “친근한 녹지”로서 가장 많이 抽出된 것은 奈良公園(자연공원)이다. 이는 운동, 산책, 휴양 등 多目的으로 이용하기에 집에서부터

<表-4> “親近한 綠地”의 條件

“親近한 綠地”의 종류	近距離	多目的 이용	視覺的인 影響		名稱
			大	小	
自然公園	●	●	●		●
대규모 사원	●	●	●		●
山			●		●
池·川등 수변	●		●		●
施設公園	●				●
公共施設庭	●			●	●
소규모 寺院	●			●	●
주택 前庭	●			●	

의 到達距離가 가깝고(500-1000m이내), 잔디, 수면, 동물, 수목과 같은 自然要素를 갖추고 있어 視覺的인 影響력이 크게 인식될 뿐아니라 風景的으로 연상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대규모 사원의 경내림은 중세의 鄉과의 관계가 깊어서(半田地區 부근은 東大寺 管轄로 이를 봉양하던 鄉이었으며, 元興寺지구 부근은 興福寺 管轄의 鄉이었다.) 주민들의 信仰과 결부되어 친근하게 느껴진다. 약간 遠距離에 있는 사원이라도 “코스모스의 절”이라든가 “수국의 절” 등과 같은 이미지로 연상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지형성이 親近한 녹지의 創出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山은 시가지내 어디서나 볼 수 있으므로 視覺的인 影響력이 크고, 학교의 校庭이라든가 공공시설

의 附屬庭은 지나치면서 본다든가 운동장으로 이용하여 接하는 녹지로서 중요하다. 이같은 공공시설의 녹지에서는 수목의 種類라든가 외부에서 보이는 效果가 무시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인 수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목의 종류라든가 效果를 고려해서 植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 전정의 녹지는 視覺적으로 接하기 쉬운 특징 때문에 “親近한 녹지”로 많이 想起된다. 盆栽라든가 꽃이 피는 庭木, 향기가 있는 나무 등은 量적으로는 적지만 近隣の 주민들이 그 效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중한 녹지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親近한 녹지”는 500-1000m 내에 分布하고 있으며 이 거리가 친근감을 느끼는 限界域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사원의 境內林, 자연공원은 산책, 운동 등의 利用行爲가 다양하여 多目的 이용에 대한 要求를 滿足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시가지 주변의 殘存林으로서도 시각적인 영향력이 커서 친근한 녹지로 想起되기 쉬우므로 좀더 확보되어야 할 녹지라고 생각된다. 주택의 녹지 등은 녹지의 규모가 적어도 항상 시각적으로 接觸되어 친근한 녹지로 認識되고 있다. 이러한 특질은 새로운 녹지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舊 시가지에 있어서 “친근한 녹지”로서 보존 및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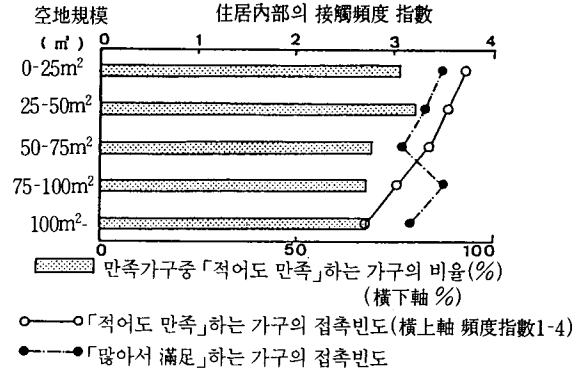
5. 綠地와의 接觸이 綠意識에 미치는 影響

(1) 住居에 있어서 「綠量滿足」意識과 녹지와 接觸의 상호관계

住民은 일상적으로 利用, 시각적인 接觸 등을 통하여 各種의 녹지와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거 내부에 녹지(空地)가 적은 경우에도 주변의 녹지와 接觸하는 頻度を 높임으로써 녹지에 滿足하는 상태에 달 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림8>은 주거의 空地 規模별로 녹지와 接觸 頻도와 「綠量滿足」의 相關關係를 본 것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읽을 수 있다.

①空地가 적어도 接觸頻도가 높음으로써 “적어도 滿足”이라는 意識이 나타난다. ②空地規模 50-75m²를 경계로 “많아서 滿足”이라는 意識이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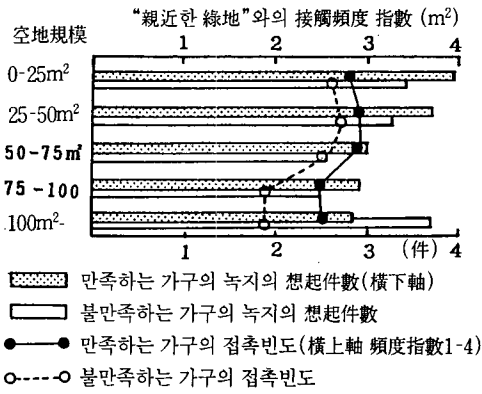


[그림 8] 空地規模別 녹지와 接觸頻도와 綠量滿足意識의 관계

가한다. ③空地規模가 큰 가구의 경우 녹지가 “많아서 滿足”이라는 회답과 “적어도 滿足”이라는 가구의 接觸頻度を 비교해 보면, “많아서 滿足”이라는 가구의 接觸頻도는 “적어도 滿足”하는 가구의 接觸빈도를 항상 上廻하고 있다. 즉 「많다」, 「적다」 意識에 대하여 주거 內部的 綠地와의 接觸頻도가 관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 內部的 공간이 적은 경우에도 녹지와 많이 接觸함으로써 녹지에 滿足하는 意識이 생길 수 있다고 推測할 수 있다.

(2) “親近한 녹지”와의 接觸과 「綠量滿足」意識의 상호관계

舊奈良市街地에 있어서 녹지는 일상적으로 接觸하는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親近한 綠地”로서 상기되기 쉽고, “친근한 녹지”와 接觸하므로써 주민의 녹지에 대한 要求가 滿足될 것으로 豫測된다. <그림9>는 “親近한 녹지”와의 接觸과 녹지에 대한 滿足 意識의 관계를 “親近한 녹지”와의 接觸頻度, 想起件數 및 「녹량만족」意識에 대해 各가구의 공간규모별로 비교해 본 것이다. 이 그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읽을 수 있다. ①空地가 적어도 “親近한 녹지”와의 接觸頻도가 높음으로써 녹량에 滿足하는 意識이 나타난다. ②공간규모 50-75m²를 경계로 녹량에 滿足하는 가구 및 不滿足인 가구의 接觸빈도가 급격히 低下한다. ③녹량에 滿足하는 가구와 不滿足인 가구의 接觸빈도를 비교해 보면 항상 만족하는 가구의 接觸빈도가 上廻하고 있다. ④공



[그림 9] 녹량만족의식과 “親近한 綠地”와의 接觸頻度 및 想起件數의 관계

지규모가 작은 가구의 경우 滿足하는 가구의 想起件數가 높고 상기건수가 「綠量만족」의식에 관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親近한 綠地”와의 接觸頻度, 想起件數가 많음으로써 주거 内部의 공간이 적은 경우에도 綠地에 滿足하는 意識이 생길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의 空地規模, 주거 내부 및 주변의 “親近한 綠地”와의 接觸頻도와 「綠量滿足」意識의 상호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定性的인 傾向이 보이므로, 주거 내부의 공간규모가 적어도 綠地와 接하는 位置, 頻度を 고려하여 接觸하는 기회를 늘리므로써, 나아가서는 주변의 “親近한 綠地”를 創出, 保全하여 접촉을 增加시킴으로써 綠地에 대한 滿足感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6. 結 論

오늘날 住居環境의 정비에 있어서는 질적인 快適性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거공간의 質적인 靚적성을 創出하기 위하여는 주민이 滿足하는 綠地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론은 綠地에 대한 住民의 滿足意識 및 接觸의 實態를 調査, 分析하여 綠地와의 接觸이 住居意識에 미치는 影響을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舊나라시가지의 住民들은 주거 및 주변의 綠化에 대해서 量的으로는 적어도 滿足하고 있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綠量滿足」의 尺度가 綠地에 대

한 住民 意識을 파악하는 有效한 指標로 活用될 수 있다.

2. 주민들은 주거의 綠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分布 位置別로 前庭을 갖는 경우에 接觸頻도가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또한 前庭의 역할로서는 接道部의 綠化 要素로 效果가 기대되며 緩衝空間, 植栽에 의한 獨自性, 차폐 등 綠地의 二次的 效用도 인식되고 있다.

3. 一定 生活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있어서 “親近한 綠地”는 利用에 의해 接하는 것과 視覺적으로 接하는 것으로 나뉘어지고, 그 種類별로 몇군데로 集中하는 傾向이 있었다. 利用에 의하여 接하는 것으로는 自然公園, 大規模 사원의 境內林 등이 있으며, 視覺적으로 接하는 것으로는 住宅의 前庭, 도로변의 綠地, 山 등이 抽出되었다.

4. “親近한 綠地”의 조건으로는 到達距離가 가까울 것(500-1000m), 多目的으로 利用될 것, 視覺的인 영향력이 클 것, 名稱을 갖고 있을 것 등이 抽出되었다.

5. 주거 내부의 空地規模가 적을 경우에도 接觸의 頻度を 높임으로써 綠地에 대하여 滿足하며, 空地가 넓을 경우에는 다소 接觸빈도가 적어도 綠地空間이 확보됨으로써 滿足하는 傾向을 보였다. 이러한 傾向은 주위의 “親近한 綠地”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내부에 接할 수 있는 綠地(空地)가 적을 경우 주변의 “親近한 綠地”와 接觸함으로써 滿足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주거에서 空地規模가 적어도 綠地와 接하는 位置, 頻도를 고려한다면 주거 주변의 “親近한 綠地”를 保全 및 創出하여 接觸의 기회를 높임으로써 주민의 綠地에 대한 要求를 滿足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1. 進士五十八(1987) 綠のまちづくり學, 學藝出版社
2. 井手任, 井手久登(1985) 「みどり空間」의 親しみやすさに關する基礎的考察, 第20回日本都市計劃學會學術研究發表論文集, 349-354
3. 平野侃三(1983) 都市の綠環境からみた綠地計劃について, 造園雜誌46(5), 211-216

4. 増山正明(1989) 地方都市における緑指標の設定に関する研究, 第24回日本都市計画學會學術研究發表論文集, 379-384
5. 井手久登(1983) 住居環境における緑の質と住民意識の関係, 第18回日本都市計画學會學術研究發表論文集, 91-96
6. 片山 律(1986) 都市オープンスペースの基礎的研究, 日本建築學會學術講演梗概集, 153-154
7. 朴 文浩, 近藤公夫(1988) 歴史的生活環境における境界空間の構成原理に関する考察, 造園雜誌 51(5), 49-54
8. 朴 文浩, 近藤公夫(1989) 歴史的街區の境界空間における緑の確保可能性に関する考察, 造園雜誌 52(5), 13-18